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 (SC-BSI)

이은형 (연구위원, eunhyung@ricon.re.kr, 02-3284-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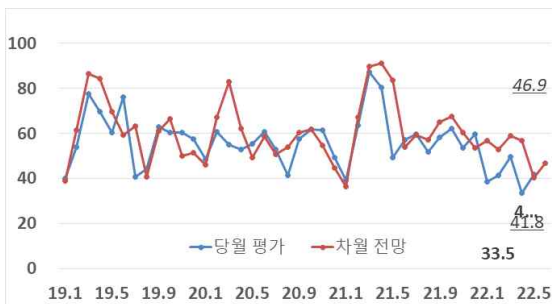
I. 2022년 5월 건설경기평가 및 6월 전망

■ 5월의 경기평가는 전년 동월에 못미치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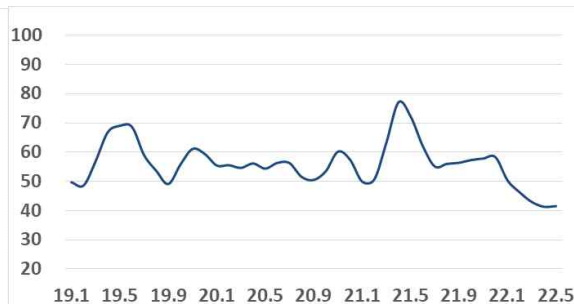
- 5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41.8로 전월(33.5)보다 소폭 개선됨(+8.3p). 차월인 6월의 전망치(46.9)도 여전히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남. 조사 응답업체들의 애로사항은 자재가격변동 등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 기능공의 수급, 안전관리강화에 따른 실 작업시간 감소, 지역별 관급공사 물량감소, 기능인력 수준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이 주된 현안문제로 지적됨.
- 수도권은 32.1(35.5→32.1)으로 소폭 하락(-3.4p), 지방은 45.4(32.7→45.4)으로 상향개선됨(+12.7p).

〈표-1〉 2022년 5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6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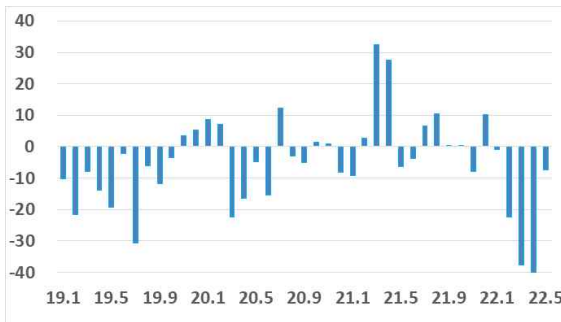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2022년 5월 평가	41.8	49.1	32.1	45.4	25.8	40.8
2022년 6월 전망	46.9	53.9	49.1	46.1	54.8	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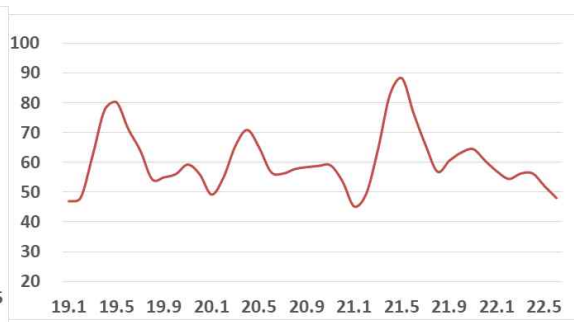
〈당월 평가 및 차월 전망 추이〉



〈당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당월 평가)〉



〈차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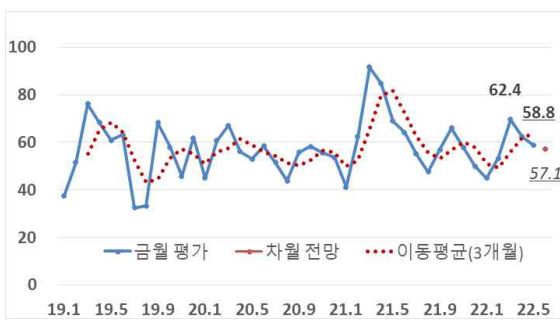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전년 동월에 못미치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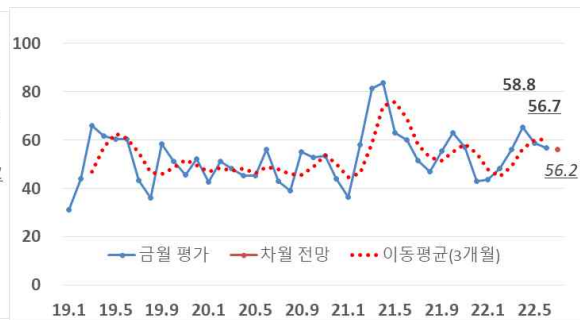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수주가 62.4(69.2→62.4)로 집계되면서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6.8p), 하도급수주도 56.7(58.8→56.7)로 그간의 하락세가 이어짐(-2.1p).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64.5→58.5)이 전월 대비 악화(-6.0p), 지방(65.5→63.8)에서는 전월의 수준이 유지됨(-1.7p).
 -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64.5→64.2)이 전월과 사실상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으며(-0.3p), 지방(56.7→53.9)에서는 소폭의 하락을 보였음(-2.8p).

〈표-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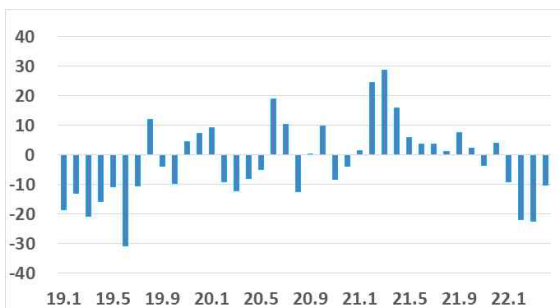
구분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원도급 수주	2022년 5월 평가	62.4	68.9	58.5	63.8	64.5	63.2
	2022년 6월 전망	58.8	67.7	69.8	54.6	87.1	53.9
하도급 수주	2022년 5월 평가	56.7	62.9	64.2	53.9	64.5	65.8
	2022년 6월 전망	56.2	64.7	73.6	49.6	83.9	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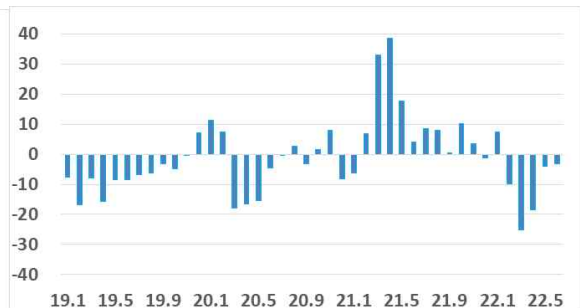
〈원도급 수주〉



〈하도급 수주〉



〈원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하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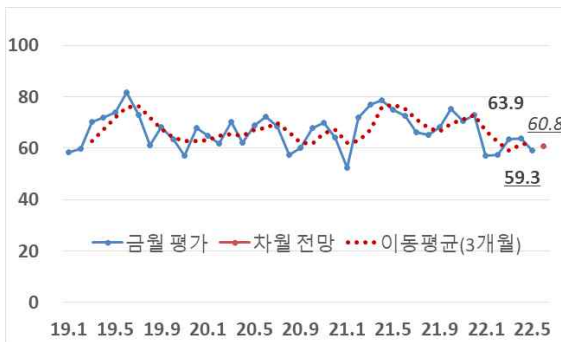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의 개선세는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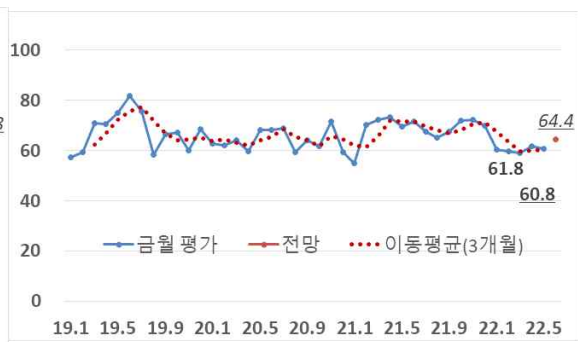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59.3(63.9→59.3)으로 전월보다 소폭 악화되었으며(-4.6p), 전년 동월(74.9)과는 크게 동떨어진 상황이 지속됨.
 - 지역별로는 수도권(43.5→50.9)이 전월과 달리 소폭의 개선을 보인 반면(+7.4p), 지방(71.3→62.4)은 일정수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됨(-8.9p).
-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60.8(61.8→60.8)로 전월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1.0p), 전년 동월(69.5)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51.6→54.7)은 소폭의 변동만을 보였으며(+3.1p), 지방(65.5→63.1)은 그 반대의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2.4p).

〈표-3〉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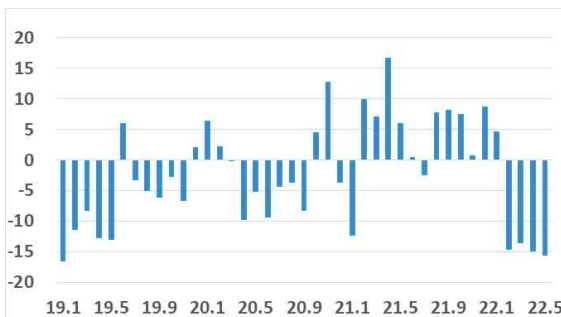
구분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공사대금수금	2022년 5월 평가	59.3	74.9	50.9	62.4	48.4	59.2
	2022년 6월 전망	60.8	73.7	50.9	64.5	51.6	57.9
자금조달	2022년 5월 평가	60.8	69.5	54.7	63.1	45.2	63.2
	2022년 6월 전망	64.4	67.7	56.6	67.4	54.8	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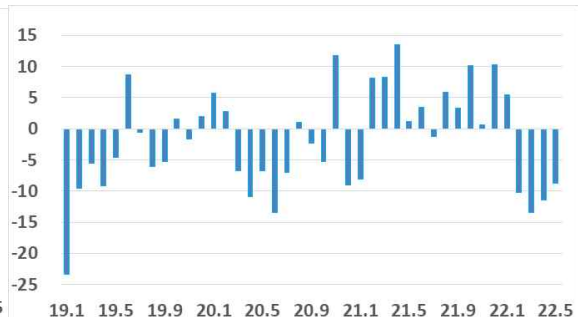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공사대금수금 증감(전년 동월비)〉



〈자금조달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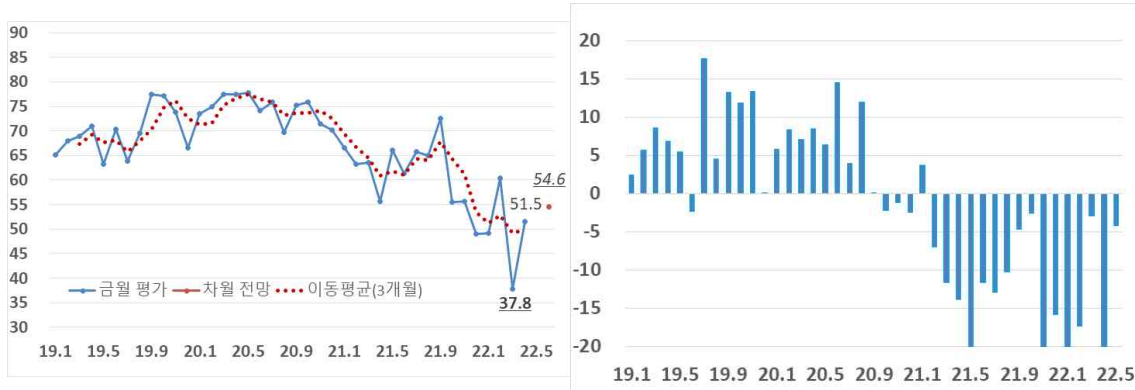
3 건설기능인력 관련 지수 (인건비, 인력수급)

■ 인건비체감과 기능인력수급은 금년 들어 지속 하락

- 인건비체감¹⁾ 경기실사지수는 51.5(37.8→51.5)로 반등하면서 그간의 추세를 뒤집었는데(+13.7p) 이는 전년 동월(55.7)에 근접하는 수준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37.1→45.3)에서 전월과 다른 개선을(+8.2p), 지방(38.0→53.9)에서도 상당 수준의 상승을 보였음(+15.9p).
-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²⁾도 62.9(55.4→62.9)로서 전월 대비 상승했지만(+7.5p), 여전히 작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수도권(56.5→54.7)은 전월의 수준이 지속된 반면(-1.8p), 지방(55.0→66.0)은 전월과 달리 뚜렷한 개선 정도가 집계됨(+11.0p).

〈표-4〉 인건비 및 기능인력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인건비 체감	2022년 5월 평가	51.5	55.7	45.3	53.9	51.6	48.7
	2022년 6월 전망	54.6	64.7	60.4	52.5	61.3	55.3
인력수급	2022년 5월 평가	62.9	69.5	54.7	66.0	61.3	64.5
	2022년 6월 전망	64.4	67.1	62.3	65.2	67.7	65.8



〈인건비 체감 (개선·악화정도)〉

〈인건비 증감(전년 동월비)〉

1)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의 체감도(개선 또는 악화)를 의미함
 2)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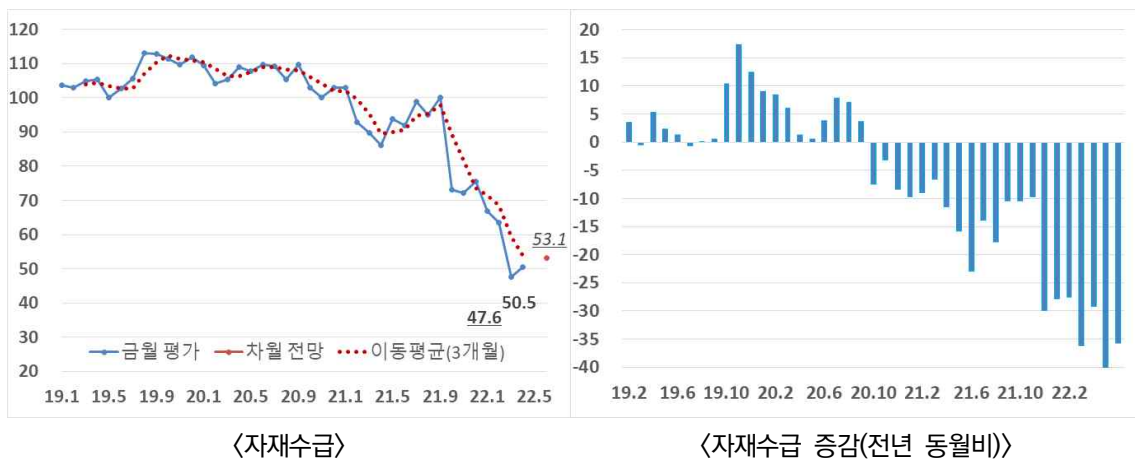
4 건설자재 관련 지수 (자재비, 자재자재수급³⁾)

■ 자재비지수와 자재수급지수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

- 자재비⁴⁾ 경기실사지수⁵⁾는 19.6(15.0→19.6)으로 전월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4.6p). 차월(32.0)의 전망치도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급등한 자재가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에 건설공사의 계약시점과 실제 공사단계의 공사비 차이는 여전히 업계의 문제로 지적됨.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법은 찾기 어려운 것이 현 시점의 상황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12.9→18.9)에서는 소폭 개선되었으며(+6.0p), 지방(15.8→19.9)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지만 업황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4.1p).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50.5(47.6→50.5)로 전월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2.9p), 상대적으로 자재비보다는 원활한 정도로만 볼 수 있을 것임. 참고로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전문건설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요인일 것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50.0→45.3)에서 소폭의 지수하락이 조사된 반면(-4.7p), 지방(46.8→52.5)은 수도권과 반대양상을 나타냄(+5.7p).

〈표-5〉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자재비 체감	2022년 5월 평가	19.6	66.5	18.9	19.9	16.1	22.4
	2022년 6월 전망	32.0	67.7	28.3	33.3	29.0	35.5
자재수급	2022년 5월 평가	50.5	86.2	45.3	52.5	41.9	56.6
	2022년 6월 전망	53.1	85.6	47.2	55.3	45.2	55.3



3)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게 나타남.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나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고, 실무적으로도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드물기 때문임.
 4) 기업들이 구매하는 자재비의 체감수준(개선 또는 악화)을 의미함
 5)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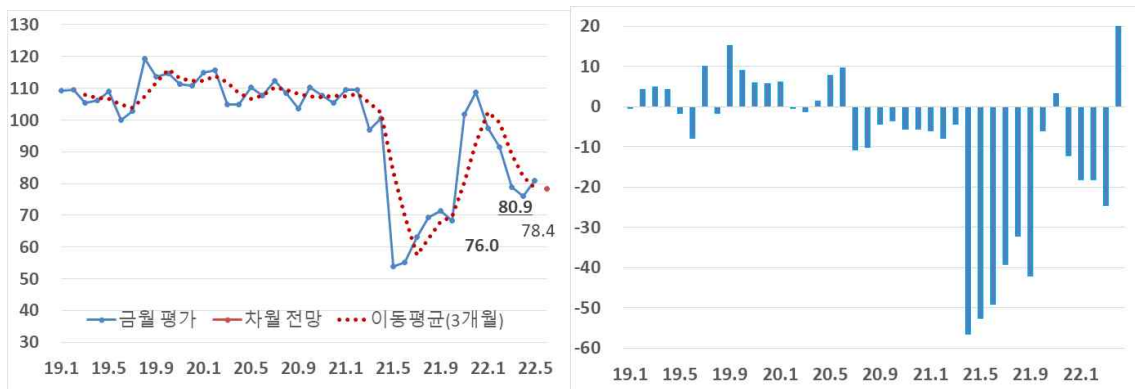
5 건설장비 수급지수 (장비임대료, 장비수급)

장비임대료지수는 연이은 하락, 장비수급지수도 동일

- 장비임대료 경기실사지수는 46.4(38.2→46.4)로 전월보다 개선되었으며(+8.2p), 이런 추세는 차월(56.7)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6.4p). 건설장비의 임대료 문제는 유가상승같은 가시적인 요인과 함께 건설업계의 수요가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45.2→47.2)은 전월의 수준을 유지했으며(+2.0p), 지방(35.7→46.1)은 큰 폭의 개선세를 기록함(+10.4p).
- 건설장비수급 경기실사지수는 80.9(76.0→80.9)로 전월 대비 소폭의 변동이 있었지만(+4.9p), 예년의 건설장비의 수급지수는 통상 100이상을 나타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80.6→77.4)은 전월보다 소폭 하락(-3.2p), 지방(74.3→82.3)은 개선된 것으로 집계됨(+8.0p).

〈표-5〉 건설장비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장비임대료 체감	2022년 5월 평가	46.4	27.5	47.2	46.1	54.8	39.5
	2022년 6월 전망	56.7	36.5	67.9	52.5	74.2	52.6
장비수급	2022년 5월 평가	80.9	53.9	77.4	82.3	67.7	80.3
	2022년 6월 전망	78.4	55.1	75.5	79.4	71.0	80.3



〈건설장비수급〉

〈건설장비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참고: 2022년 5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41.8	49.1	32.1	45.4	25.8	40.8	
	차월 전망	46.9	53.9	49.1	46.1	54.8	47.4	
공사물량	원도급 수주	금월 평가	62.4	68.9	58.5	63.8	64.5	63.2
		차월 전망	58.8	67.7	69.8	54.6	87.1	53.9
	하도급 수주	금월 평가	56.7	62.9	64.2	53.9	64.5	65.8
		차월 전망	56.2	64.7	73.6	49.6	83.9	59.2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급	금월 평가	59.3	74.9	50.9	62.4	48.4	59.2
		차월 전망	60.8	73.7	50.9	64.5	51.6	57.9
	자금조달	금월 평가	60.8	69.5	54.7	63.1	45.2	63.2
		차월 전망	64.4	67.7	56.6	67.4	54.8	63.2
건설 기능인력	인건비 체감	금월 평가	51.5	55.7	45.3	53.9	51.6	48.7
		차월 전망	54.6	64.7	60.4	52.5	61.3	55.3
	인력수급	금월 평가	62.9	69.5	54.7	66.0	61.3	64.5
		차월 전망	64.4	67.1	62.3	65.2	67.7	65.8
건설자재	자재비 체감	금월 평가	19.6	66.5	18.9	19.9	16.1	22.4
		차월 전망	32.0	67.7	28.3	33.3	29.0	35.5
	자재수급	금월 평가	50.5	86.2	45.3	52.5	41.9	56.6
		차월 전망	53.1	85.6	47.2	55.3	45.2	55.3
건설장비	장비임대료 체감	금월 평가	46.4	27.5	47.2	46.1	54.8	39.5
		차월 전망	56.7	36.5	67.9	52.5	74.2	52.6
	장비수급	금월 평가	80.9	53.9	77.4	82.3	67.7	80.3
		차월 전망	78.4	55.1	75.5	79.4	71.0	80.3

주1: '전체'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합산해서 산출.

주2: '광역시'는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